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

(A Study of Woman's role in the Military Evangelism Activity)

주연종 목사



- 현 육군 7군단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 M.)
- 미, 풀러 신학대학원 수학
-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중(Ph. D. Candidate)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지 벌써 1세기하고도 사반세기가 넘었다. 군 복음화가 시작된 지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하였고 군내 군종병과가 창설되고 군목이 활동을 시작한 지는 58년이 지났다. 어느새 한국의 군종 병과는 그 규모로 따진다면 세계 2위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지난 60년간 한국 교회의 성장에 군복음화가 기여한 부분은 이미 여러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작금에 있어서도 학원

선교와 함께 군선교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현장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1970년대 이래로 한국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성 안수 문제와 여성 사역의 중요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군선교 현장은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 사역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다시피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군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확장되고 여군의 역할이 다변화하는 등 미래에 있어서 여성의 군 안에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 여성 사역에 대한 발전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군선교 현장에서의 여성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여성 사역의 문제로부터 현재 한국 교회의 여성 사역의 현황을 정리하고 한국군의 국방개혁안에 나타난 미래 군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 후에는 현역 장병과 현역 군목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군선교와 여성 사역의 문제를 다룬 후 군선교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시하고 아울러 효과적인 여성 사역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교회사에 나타난 여성 사역과 현황

우리나라는 여성 대법관, 여성 국무총리, 여성 장군, 여성 CEO, 여성 정당대표, 여성 대통령후보 등이 속출하면서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교회에서의 여성의 숫자는 남성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초등학교 교사도 여성 교사가 남성 교사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여성부(女性部)¹⁾가 있어 여성의 사회적인 권익

의 신장, 각종 여성관련 법률개정 작업 등을 통해 전통적인 여성관의 개선과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1999년 2월 8일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우리나라는 남녀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임을 천명하였다. 2007년에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법이 발효되어 호주제도 사라졌다.

마케팅과 정당 활동, 교육사업 등에서 여성의 진출과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선교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목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여성의 역할 또한 지대하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도외시킨 채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본 장에서는 여성과 목회사역에 대한 역사적 사례들과 한국 교회와 여성 사역 현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교회사에 나타난 여성 사역

(1) 초대교회와 여성 사역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여인으로부터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었던 여인들(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²⁾에 이르기 까지 복음서에도 여인들의 등장

1) www.moge.go.kr/korea/view/intro/intro01_03.jsp, 여성부는 1996년 6월 29일 정무장관 제2실로 출발하여 2001년 1월 29일에 정식 중앙정부부처의 하나로 출범하였다. 후에 보건복지부의 사업 일부를 이관 받아 2005년 6월 23일에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일부 사업 재 이관을 거쳐 2008년 2월 29일, 다시 여성부로 개편되었다. 가정폭력, 각종 법률 제·개정, 이주여성 문제 등 광범위한 여성의 문제를 정책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부의 영문 명칭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없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서 '양성 평등부'라 함이 옳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 없는 부처를 유지하는 데 따른 국제관계에서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2) 누가복음 24:10

빈번하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사역자였다기보다는 병을 고침 받고 그 은혜로 주님을 따랐던 ‘따르는 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좀 다른 양상을 띠는 여인들이 사역자의 성격으로 등장한다. 불행한 사례였기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행 5:1-11)의 경우도 부부가 함께 교회의 공적인 사역에 관여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는 신약에서 여섯 번이나 나오는데 항상 부부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이볼로를 가르쳤으며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기까지 충성했다.³⁾ 이들은 초대교회의 온전한 사역자로 쓰임 받은 부부였고 브리스길라는 아내로서 가정교회를 섬기던 사역자였다. 그밖에도 포복장수로서 바울 일행에게 집을 제공해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게 했던 루디아(행 16:14, 40),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었으나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되살아난 다비다(행 9:36), 로마서를 전달할 책임을 맡았던 여집사 뵈비(롬 16:1)⁴⁾ 등이 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 사역이 점차 증가되어가고 있었고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쟁과 이에 대한 대답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와 관련한 가르침을 그의 서신을 통해 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⁵⁾

한편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입은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더구나 성경은 하나

님의 형상이 남자만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⁶⁾ 바울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녀의 연합이고 남녀 각각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도 똑같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다(갈 3:26-27). 여기서 아들들(취오이, υἱοὶ)은 복수로서 남자와 여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⁷⁾ 26절은 ‘모든’(all, πάντες, πάντες) 즉, 남녀를 통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고 아들(υἱός)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자녀(눅 20:34), 사람(눅 10:6), 자손(고후 3:7)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복종의 문제,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과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엡 5:23-24)에 대한 말씀에 나오는 “머리(케팔레, κεφαλή)”의 헬라이어적 의미는 ‘머리’, ‘두목’ 등과 같은 뜻도 있지만 ‘기원’, ‘수원’(水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순하고 종속적 의미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서로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⁸⁾ 이것은 ‘상호복종’(엡 5:21, mutual submission)의 개념으로도 언급되어 있는데 부부 사이는 복종과 지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관계로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⁹⁾ 당시에도 강자였던 남편이 약자였던 아내를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함으로 시대를 초월한

3) Mary J. Evans, 정옥배 역, 《성경적 여성관》, (서울: IVP, 1992), p. 178. 이들 부부는 행 18:2-3, 18, 26; 롬 16:3; 딤후 4:19 등에서 언급되고 있고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가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남편보다 앞서 나오는 것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4) 뵈비가 집사였는가 아니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녀의 역할은 초대교회에서 집사 이상의 역할이었다. 바울은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5) 바울서신에 나타나는 결혼과 여성에 관한 구절로는 갈 3:26-29; 엡 5:18-20; 빌 4:6-7; 롬 7:2; 고전 7장, 11:3-16:14:34-35; 딤후 2:8-15, 5:14; 골 3:18-19; 살전 4:3-6; 딤후 2:4-5 등이 있다.

6) Wayne Gruden Edit, *Biblical Foundations for Manhood and Womanhood*(Wheaton: Crossway Books, 2002), p. 72.

7) Mary J. Evans, 정옥배 역, 《성경적 여성관》(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p. 94.

8) *Ibid.*, pp. 96-99.

9) Wayne Gruden, pp. 221-225. 상호복종의 의미가 남편의 권위를 무효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상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상대를 고려하고 상대의 요구에 응대하는 것 등으로 이해될 때 바람직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기독교의 탁월한 윤리를 이미 성경은 선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신약의 가르침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녀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호복종의 윤리를 제시함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다. 여성의 세계는 제한되거나 없었고 남성의 일부로만 그려졌던 역사적 오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¹¹⁾ 그렇다고 극단적인 페미니스트(feminist)들의 주장처럼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성의 특성을 붕괴시키는 오류도 인정하지 않았다.

(2) 교회사 초기에 나타난 여성 사역

세계 교회사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은 매우 많다.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여성 사역자는 테클라(Thecla, 1세기경)이다. 그녀는 바울의 제자로서 이고니온 출신의 이교도 가정의 딸이었다. 그곳에서 바울을 모셔 설교를 청해 듣던 오네시보로의 가정 교회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테클라는 약혼한 상태였으나 파혼을 결심하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박해를 받고 동굴에 기거하며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다.¹²⁾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Helena, 250-330)는 콘스탄틴이 어릴 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 황제가 된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콘스탄틴은 교회의 박해를 종식시키고 기독교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인물이며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식화한 인물이다.¹³⁾ 콘스탄틴의 영향은 20세기

까지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¹⁴⁾ 헬레나는 이런 콘스탄틴으로 하여금 교회의 수호자이며 최초의 에큐메니칼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회의(325년) 등을 개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여인이었다. 헬레나는 성지를 방문하여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거룩한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며 실제로 성지에 수많은 기념 교회들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다.¹⁵⁾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Monica, 331-387)의 초대교회에서의 영향력은 교회사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모니카는 기독교인이란 누구냐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여성이다. 그녀는 모든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모범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낳았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중생하도록 끊임없이 도왔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지속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회심에는 암부로스(Ambrose, 339-?)와 그의 탁월한 설교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 뒤에는 아들이 마니교에서 돌이켜 회심하도록 간절히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¹⁶⁾ 그밖에도 닛사의 그레고리의 아내로 알려져 있으며 사제로 사역했던 여사제 테오세비아(Theosebia, 329-389), 제롬의 성경번역을 도와 동역했던 파울라(Paula, 347-404) 등이 있는데, 파울라는 금욕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제롬을 따라 팔레스타인으로 거처를 옮겼고 곧 이어 베들레헬에 정착하여 제롬의 성경 번역을 도와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들을 번역하는 일에 함께했다.¹⁷⁾ 또한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안투사(Anthusa, 347-407)는 안디옥에서 살았던 지식이 풍부했던 여인이었다. 안투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레고리의 어머니 논나

10)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서울: 두란노, 2004), p. 72.

11) Letty M. Russell Edit,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p. 22.

12) 라은성,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서울: 그리심, 2005), pp. 28-34. 테클라에 관한 이야기는 테클라행전(Acts of Thecla)에 잘 나타나 있다.

13)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70), p. 101.

14) Justo L. Gonzales, 《초대교회사》(서울: 은성, 1987), pp. 197-198.

15) 라은성,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서울: 그리심, 2005), pp. 167-170.

16) *Ibid.*, p. 213.

17) *Ibid.*, p. 254.

와 함께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꼽히고 있다.¹⁸⁾

(3)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여성 사역

한국 역사상 여성의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곳은 교회였다.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은 1886년 5월 30일, 메리 스크랜튼(Dr. Mary Scranton) 선교사에 의해 고관의 첩과 거지를 학생으로 받아 시작되었고 1년 뒤에 문을 연 정신학교(貞信學校)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엘러스(Dr. Annie Ellers)가 고아들을 모아 시작한 학교였다.¹⁹⁾ 한국 최초의 여성을 위한 병원이었던 보구여관(保救女館)은 민비의 명명(命名)으로 1887년 10월 20일, 스크랜튼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²⁰⁾ 189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고관대작들이 무식대중을 지배하던 조선의 교육 사업, 그중에서도 여성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미 장로교 선교부는 도티(S.A Doty)라는 전담 인력까지 파송하였다.²¹⁾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1907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어 15일에 끝난 장대현교회 남자사경회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사경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어 평양 시내의 학교들과 장대현교회의 남녀 학교에도 동일하게 임하였다. 장대현교회와 선교사들은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여성들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1월 17일부터 시작되어 19일까지 계속된 집회에서 여성들은 이전에 장대현교회에서 체험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²²⁾ 이어 2월

13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2주간의 남녀 사경회에는 남자 성도가 800명, 여자 성도가 400명이 참석하여 다시 한 번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다. 3월 16일부터 12일간 전국에서는 약 500명의 전도 부인들이 평양에 모여 대부흥운동의 열기를 조선 반도에 퍼뜨리기 위한 사경회를 개최하였고²³⁾ 이로 인해 부흥운동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1919년에 있었던 3·1독립 만세운동은 기독교의 구국운동이었고 불의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교회의 저항운동이었다. 유관순을 비롯한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이 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후에도 한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여성운동 혹은 여성이 주동이 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16년에는 서울 아현동에 여자 육아원을 개설, 운영하였고 감리교 여선교회에서는 3·1운동의 진원지였던 태화관을 매입하여 ‘태화 기독교사회관’을 만들어 직업교육, 아동보건사업, 여성의식개발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1924년에는 미국 감리회 여선교회에서 공주에 영아원을 개설하였고 1932년에는 해주 구세요양원의 홀(R.S. Hall)이 도입한 ‘크리스마스 썰’ 발행을 통해 결핵 퇴치 운동도 전개하였다.²⁴⁾

해방을 전후해서 한국에서의 여성의 사회 참여나 여성운동을 전개한 인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여성들이었다. 한국인 여성 박사 1호였으며 이화여전의 최초의 한국인 학장을 지낸 박순천을 비롯하여 한국 최초의 사법시험 합격자였으며 최초의 변호사였던 이태영 박사는 이화여전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후에 YMCA 명예 실행위원을 지냈으며 세계 감리교 평화상 등을 수상했던 여성 기독교 지도자였다. 이들은 후학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한국 여성들에게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민

18) *Ibid.*, p. 266.

19) 김영재, 《한국 교회사》(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p. 77.

20) *Ibid.*, 이 병원은 최초에 이화학당 내에 설치되었는데 후에 자리를 옮겨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었다.

21) 백낙준, 《한국개신교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 139.

22)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p. 250.

23) *Ibid.*, pp. 259-260.

24) 김영재, pp. 239-240.

주화와 여성 인권의 확대에 기여한 바도 크다.²⁵⁾ 이 외에도 1968년에 “삼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새 시대 민족복음화 운동을 주도했던 김활란 박사²⁶⁾, 김활란 박사에 이어 이화여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김옥길 박사, 2·8독립선언과 3·1운동에 참여했던 정신여고 출신의 김마리아는 60년대 후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전도와 신학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한명숙도 이화여대 출신의 여성 사회운동가, 인권운동가였다. 이밖에 최자실 목사, 안이숙 사모 등도 기독교 여성 운동과 복음사역에 직접적으로 투신했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들이었다.

2) 한국 교회와 여성 사역의 현황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 모델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리암은 물론 여사사(女士師) 드보라, 여선지자 홀다, 초대교회의 여성 사역자였던 겐그레아 교회의 뵈뵈,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고백했던 브리스길라 등을 성경상의 여성 사역자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모델로는 말씀 사역자인 조이스 마이어 목사, ‘대적의 문을 취하라’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신디 제이콥스 목사, 모잠비크의 고아 사역자 하이드 베이커 목사 등이 있다. 최근의 한국 교회 지도자로서는 조용기 목사의 장모인 고 최자실 목사, 부스리기사랑나눔회 대표이며 현 국회의원인 강영순 목사,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의 저자이며 우리

들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양재 목사,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등이 있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장로교 통합,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등 주요 교단들이 여성안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교단별 신학대학과 대학원에는 여학생의 비율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신대 신대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사역자들이 사역에 어려움으로 꼽은 첫 번째 이유가 평신도들의 부정적 인식(48.2%)으로 드러났고 여성 사역자들의 84.8%가 평신도들이 여성 사역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역이 점차 확대되어 상담, 교육, 청소년 사역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 군과 여성의 역할

1) 여군의 역사

한국 여군의 역사는 1948년 30명이 간호장교로 소위로 임관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군병과로서의 출발은 한국전쟁 전인 1949년 7월에 예비역 소위로 임관한 ‘여자청년호국대 지도자훈련원’ 출신의 여군 32명이 기원이 되었다. 당시에는 정식 군인은 아니었고 임관 후에는 현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편입되기는 했지만 당당히 군복을 입은 여군으로서의 위용을 갖추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한 후인 1950년 9월 1일 국방부 일

25) 이희호, 《동행》(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2008), p. 20, 141

26) 김활란 박사의 본명은 기득(己得)이었고 활란은 세례명 ‘헬렌’을 한자화한 것이다. 이화학당 재학 중 3·1 운동에 참여했고 1922년, 도미하여 웨슬리안대학, 보스턴 대학을 거쳐 1931년에는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최초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이화여대 총장, 대한민국 순회대사 등을 역임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 1970년 소천했다. 막사 이사이 상, 미국 감리교단 수여 다락방 상, 대한민국 일등 수교 훈장 등을 수상했다.

27) 국민일보, 2009년 1월 9일 자 37면.

반명령 (육)제58호로 부산에서 제2훈련소(지금의 육군훈련소) 예속으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되었고 9월 4일 500명이 제1기생으로 입소했다. ‘여자의용군교육대’ 출신 의용군들은 당시에는 ‘여자배속장교’라는 준 현역의 신분으로 있다가 그해 10월 10명이 현역으로 정식 임관되어 최초의 공인여군이 되었다. 1951년 11월에는 육군본부 고급 부관실 내에 여군과가 설치되어 여군병과의 탄생을 알렸다. 이어 1954년 1월 1일부로 여군과는 여군부로 승격되었고 1959년 1월 1일 여군처로 또 다시 승격되었다.²⁸⁾

1970년 12월 1일에는 육군 여군의 발전을 위해 인사참모부 산하의 여군처를 해체하고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의 여군단을 창설하여 여군 발전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되었다.²⁹⁾ 이후 여군은 간호병과와 함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으며 1990년에는 여군병과를 해체한 후 군의 제병과에 흡수되어 야전 지휘관으로부터 참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에는 한국군 사상 최초로 간호병과장이었던 양승숙 대령이 장군(준장)으로 진급되었고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앞으로도 여군 인력은 전체 군인의 5.6%까지 증강될 계획이다.³⁰⁾

한편 여군출신 예비역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여성회’는 2008년 조직 결성 10주년을 맞아 전역 이후에도 여성예비역 군인들로서 안보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여성회’는 현재는 ‘재향군인회’의 보조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968년 2월부터 ‘향군부녀회’를 조직하여 근 40년간 그 활동을 유지해 오던 중이었다. 여성군인들의 사회 참여는 남성 군인들과는 달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 봉사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재 20만 명 회원 확보를 목표로 각 시도 지부 및 해외(LA)지부를 결성, 특유의 결속력을 기반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³¹⁾

2) 한국군에서의 여군의 역할

여군병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육·해·공군에는 병원급 부대마다 간호장교들이 임관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군의 활동도 점차 확대되어 여군병과로 개편되고 현재에는 여군병과가 폐지되어 여군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간호, 법무, 부관, 인사, 정훈, 정보, 보병, 군수, 공병, 화학, 항공, 포병 등으로 확대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군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각 군 사관학교에서의 여생도의 성공적인 적응과 야전에서의 뛰어난 임무수행을 통해 앞으로 여군의 개념 자체가 퇴색되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의 역할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3군 사관학교들이 여생도의 입교를 허용한 것은 1997년에 공군사관학교가 처음이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가 1998년에, 그리고 해군사관학교가 1999년에 여생도를 받아들여 여생도의 3군 사관학교 입교는 어느덧 10년을 넘기게 되었다. 여생도들의 사관학교 적응력은 뛰어났다. 2009년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은 여생도였다. 이 외에도 공군사관학교의 여생도 수석 졸업은 3회 더 있었고,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2004년부터 내리 3년간 여생도가 수석 졸업을 차지하기도 했었다. 수석 입학은 이보다 더 많았다. 육군 사관학교의 경우 아직 여생도 수석 졸

28) 국방일보, 2009. 1월 14일자, 7면.

29) 국방일보, 2009. 1월 28일자, 11면.

30) 국방일보, 2009. 1월 14일자, 7면.

31)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 여성회, 《사진으로 보는 10년사》(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 2008), p. 5. 현재 회장으로는 16대 여군단장을 지낸 예대령 김화숙 권사가 맡고 있으며 주요 회원으로는 윤양희 교수(이화여대 음대), 정영숙(삼성생명 이수빈 회장 가족), 서인재(동대문구 여성회장), 강개순(학교법인 동산육영회 이사장), 손희정(전 16대 국회의원) 등이 있다.

업생은 배출되지 않았지만 1998년, 2002년, 2005년, 2007년 등 4년에 걸쳐 여생도가 수석 입학을 차지했고 공군 및 해군 사관학교의 경우는 2002년에 동시에 여생도가 수석 입학을 차지하기도 했었다.³²⁾ 여생도의 우수한 학업 성적과 임관 성적은 야전 근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여군 장교 및 부사관 그룹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 점차 전문성을 인정받고 두드러진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군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

앞서 언급한 대로 1948년 이래로 한국 여군의 지위는 남군 못지않게 향상되었고 역할도 확대되었다. 현재는 여군들도 야전지휘관 참모, 주요 보직의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미 군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군과 전혀 차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급여체계, 진급, 보직 등에 있어서도 남군과 차별이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우를 받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겪을 수도 있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회식 자리에서의 불편한 대우 등도 군에서는 거의 없다. 특히 음주에 취약한 여성을 위해 군에서는 음주 자리에는 비음주자를 위해 항상 음료수를 준비하도록 하고 개방된 장소에서 1차로 회식을 종결짓도록 하고 있다.³³⁾ 육군의 경우 ‘성군기(性軍紀)확립을 위한 7계명’을 작성하여 시행함으로써 여군에 대한 성적 차별, 학대, 회롱, 폭력 등을 시스템화하여 예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나 부지휘관을 통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

32) 조선일보, 2009년 3월 21-22일, B6면. 이 보도에 따르면 육사에서 여생도가 수석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생도가 훈육과 실기에서 남생도보다 신체적 조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육사는 여생도를 한 명의 생도로 보고 있고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평가를 하지 않지만 공사와 해사의 경우는 약간의 고려를 통해 신체적 차이를 감안한 훈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석졸업생 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사 여생도 최고 성적은 1998년도의 수석 입학생이었던 강은미(여) 생도가 졸업 및 임관식에서 받은 국무총리상이다.

33) 육군본부 문화 혁신 기획단, 《육군문화 혁신 지침서》, 육군본부, 2007. pp. 108-109.

취하고 여성으로서의 병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국군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군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은 현역 여군을 포함하여 군무원, 사관 후보생 등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군 사관학교의 여학생 지원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학업 성취도도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여군장교 및 부사관, 여 군무원 지원율도 매우 높아 최고의 여성 인력들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

4) 미래군과 여성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국방부서의 문민화와 함께 여성인력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은 그 후 10월 25일에는 국회에서 입법예고되었고 같은 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현재 이 법안에 의한 국방 개혁이 진행 중이나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재검토 중에 있다. 이 안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3군본부가 국방개혁법에 의해 개편되었고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국방개혁 2020》의 골자를 보면 먼저 69만 수준의 상비군을 50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육군은 39만 이하) 3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운영비를 줄여 전력투자에 투입하여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조직에 현역군인 숫자를 줄이고 민간인을 충원함으로써 국방조직의 문민화를 통해 유연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³⁴⁾ 작지만 강한 군을 표방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아무래도 국방 당사자인 인적 구성의 축소와 변화이다. 인원은 줄이되 여성은 늘리고 민간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안에 따라 국방부의 차관과 국장

34) 주연중, ‘21세기 군종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군선교신학 4집》(서울: 콤란출판사, 2006), p. 140.

급 인사 대부분이 현역 신분이 아니거나 혹은 아예 군 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관료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인력의 확대인데 국방부 본부는 물론 각급 부대별로 지휘관 참모 실무자들이 여군 장교나 부사관으로 채워지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³⁵⁾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학생 ROTC후보생 제도의 도입과 육군 제3사관학교의 여학생 생도 입교가 허용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여성 군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해병대에서도 독자적으로 여성 해병 인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해병대에는 2001년부터 여성 인력을 선발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에는 장교를 2003년에는 부사관을 선발하여 현재 포병, 기갑 등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제한이 되는 병과를 제외하고 전 병과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장교는 정원의 7%, 부사관은 5%까지를 여군으로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³⁶⁾ 각 군은 부대별로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시 과거에는 남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여군용을 증설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조하여 여군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군 독신자 숙소의 마련, 기혼 여군들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과 관련된 남군의 역할 등에 있어서 새로운 업무 문화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부부 군인의 경우는 현재 인접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이도 여군의 숫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인사 유형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군인 가족하면 의례히 남자 군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의미했는데 앞으로는 여군의 남편과 그 자녀들을 포함하는 개념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부대 인근의 상권 형성에 있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의 경우 여군장교나 부사관이 없는 병과가 군중병과와 수의 병과 등 몇 개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병과에 여군 인력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군중의 경우도 군 인사법에는 이미 여성군중장교의 임관에 법적 제한은 없으나 시행령이나 기타 하위 법률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여자 목사, 수녀, 비구니, 원불교 교무 등도 군중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군선교와 여성 사역

1) 군선교 현장에서의 여성 사역의 실제

현재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 중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는 없다. 그러나 민간 신분으로 군인 교회의 지원 성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민간 성직자³⁷⁾는 전체(727명)의 7% 수준인 51명이다. 이들은 목사나 전도사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교회의 담임교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앞으로 늘어나게 될 여성 군인력이 전체의 5.5%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다만 현역 신분이 아닌데다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0년 쯤 뒤에 한국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를 이미 상회하여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지원 성직자가 아닌 또 다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

35) ROK Army HQs, *The ROK Army Vision*, p. 16.

36) 월간 <중앙>, 2009년 4월 호, p. 196. 이흥희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창설 6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여성 인력의 확충을 위해 관련 시설의 현대화와 복지 및 제도적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7) 여기서 말하는 민간 지원 성직자라 함은 국방부 훈령 제973호(2008. 10. 22) ‘군 종교 활동 지원 민간성직자 관리 훈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성직자 중 교단장의 추천과 (사)군선교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 성직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부대의 교회에 담임교역자로 파송되어 사역 중인 성직자를 말한다. 민간 지원 성직자는 현재 육·해·공군에 모두 파송되어 있으며 천주교와 불교의 성직자도 일부 활동하고 있다.

로는 심방 전도사, 상담목사, 찬양 사역자 등이 있지만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 논문을 위해 현역 군목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³⁸⁾에서 이들의 57%는 “여성 사역자(전도사, 강도사, 목사)와 함께 사역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서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군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현역 군목들은 여성 사역자가 군내에서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목회나 봉사보다 상담(47%)의 영역에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은 여성 사역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현역 장병들에 대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가 여성 성직자가 담임목사나 봉사자보다는 상담자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사역에 대한 군의 요구는 상담이나 치유 등 담임교역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 제한이 따르는 이른바 틈새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최근 한 군선교 관련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군에서 세례 받은 장병들 중 여성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 교육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2) 현역 군목들의 여성 사역에 대한 의식

현역 군목들은 군내에서의 여성 사역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군목의 80%가 여성 사역자(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성 사역자와 함께 사역해 본 경험을 가졌던 군목(57%)의 숫자보다 훨씬 상회하는 숫자가 이같이 응답한

것을 보면 경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현장의 필요성에 의해 그와 같은 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주교의 경우 훈련소와 신병교육대, 3군 본부성당과 국군중앙성당, 3군사관학교 등 이른바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마다 수녀들을 배치해서 군중 신부의 사목을 돕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비자 교리교육, 상담, 봉사, 찬양 등의 역할로 장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교의 여성 사역은 단순 봉사활동 정도로 미약하지만 천주교의 경우 수녀들을 통한 여성 사역이 국지적이긴 하나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역 군목들의 대부분이 여성 사역자의 활동이 군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 것(80%)이라고 본 반면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14%)와 “영향이 없을 것이다”(6%)라는 응답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여성 군종 장교의 임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는데 “필요하지 않다”(39%)라고 응답한 군목이 “필요하다”(31%),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30%)라고 응답한 군목보다 많았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군목보다는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숫자를 합한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여성 군목의 임관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여성 사역자가 군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가장 유익하게 활용될 분야⁴⁰⁾로는 상담(47%), 봉사(22%), 찬양 사역(16%), 성직 분야(14%) 순으로 꼽고 있었는데 이를 분석하면 여성 사역자가 필요하고 선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목회보다는 상담 등의 영역이 더 적절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회 영역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상담의 이론과 자질을 잘 갖추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군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으

38) 육·해·공군의 현역 군목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메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전체 군목 중 응답자는 83명(육-82%, 해-6%, 공-12%)이었는데, 이는 전체 군목의 약 30%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이는 국민 여론 조사를 보통 1,0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로 실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역 군목 전체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39) 최석환,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법 연구》(Ph. D. diss., 종신대학교, 2008), p. 243.

40) 이 항목에 관한 응답은 일인 다항 표기 방식을 취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가 83명인데 실제 이 항목에 대한 응답 수는 141개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100으로 환산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현역 육군 기독 장병들의 여성 사역에 대한 인식⁴¹⁾

여성 사역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현역 육군 기독 장병들의 절반 이상(54%)은 여성 사역자의 군내 사역이 필요하다고 평소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절반 가까이는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46%)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여성 군목이 임관하여 부대 내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부대 내에서의 군중 활동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63%)이라고 응답하여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32%)와 부자연스럽고 거리감이 있을 것 같다(4%), 지금보다 덜 활성화될 것 같다(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은 현재 군내에서 장교나 부사관 그룹에서, 그리고 참모나 지휘관으로서 여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여군중 장교의 경우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만한 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요즘 장병들의 성장 배경이 과거와 달리, 남녀 차별이나 일방적인 남아 선호적 분위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이같이 응답한 이유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대 전 소속 교회나 직장에서 여성 교역자를 접해 본 경험이 있거나 여성 상사를 모셨다든지, 여 선배를 대상으로 일을 해 보았을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사회적 변화상도 여성 군목의 등장에 대해 열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경우도 여성 군목이나 사역자가 교회의 담임목사(10%)를 맡기보다는 상담자(63%)로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상담이 찬양 사역자(16%)나 봉사

41) 본 인식 조사는 육군의 특정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중부 전선의 군단 직할 부대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총 응답자는 164명이었다.

자(11%)를 뛰어넘는 여성 사역자에 대한 주 활동 영역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역 군목들의 이 항목 관련 설문에도 거의 유사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군내에서의 여성 사역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장병들은 여성 사역자나 여성 군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 사역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임목사나 봉사자보다는 여성 사역자의 모성애를 통해 그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외국군 사례에서 본 여성 사역

유럽이나 미주의 경우 여성 사역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이미 파악된 사실이다. 여성 성직자의 배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던 이들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여성 군중 장교의 임관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역 육군 군중 장교가 2009년 3월 현재 1,584명인데 이중 60명이 여성 군중 장교이다. 전체 인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는 552명 중 29명(5.3%)이 해군은 809명 중 60명(7.4%)이 여성 군중 장교이다.⁴²⁾ 이 밖에도 캐나다⁴³⁾에도 여성 군중 장교가 활동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경우는 여성 목사가 군목으로 임관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천주교의 경우는 정식 사제가 아닌 여성 군중 장교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여성 천주교 군중 장교는 수녀도 신부도 아닌

42) 주한미군사령부(HQs of USFK) 군중참모부

43) 캐나다는 육·해·공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각 군 참모총장은 없고 국방 총장이 3군을 통합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군중감(준장)은 3군을 통합하여 국방총장을 보좌하고 있다. 모든 군중장교는 각 군에 배속되어 각 군의 군복을 입고 활동하지만 언제든지 군을 바꾸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통합군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다. 캐나다 정규군은 약 65,000명이고 캐나다 군중장교는 약 180명이다.

신분인데 현역 임관을 지원하는 신부가 없을 경우에 캐나다 천주교 군종 교구청과 국방부와의 협의하에 일정 교육을 받은 남성이나 여성 사역자를 천주교 소속의 군종 장교로 임관시켜 활동하게 하는 제도에 따른 경우이다. 이들의 정식 명칭은 천주교 협력 사목자(Roman Catholic Pastoral Associate)이며 부대 내 천주교회의 협력 사목자이자 군종 장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영성체, 견신례 등을 행할 수 없고 고해성사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교리교육과 간편미사 등의 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 군종 장교 중 이와 같은 협력 사목자(PA)는 모두 26명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⁴⁴⁾

현역 군종 장교와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민간 지원 성직자와 같은 형태의 여성 사역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유럽과 미주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종 장교와 군종 제도는 있지만 군선교는 더 이상 거론할 수도 없는 미약한 수준에 와 있다. 더구나 군종 목사가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일반적인 부대 행사에서 군종 목사가 기도하는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 지원 개념의 민간 여성 사역자가 군에서 자원하여 활동하는 예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여성 사역자에 대해 훨씬 건고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사역 자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우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5) 여성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소

현재의 병역법과 군 인사법에도 군종 장교의 임관을 남성만으로 제한

44) 캐나다 국방부 군종감실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하위법이나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제도 시행 자체를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성 군종 장교의 임관에 대해서도 제도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다만 국방부 담당자⁴⁵⁾의 답변에 따르면 기독교의 경우 군종 장교 임관이 가능한 12개 교단의 여성 성직자에 대한 입장과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기독교 내부에서도 형평성의 시비가 일 것이고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도 충돌되는 점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군종 장교의 경우는 제도적인 보완과 군목 파송 교단간의 성직 수여 제도와 신학적 차이를 감안하여 미룬다 할지라도 여성 사역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모색은 군 선교의 새로운 장을 위해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역 군종 장교와 현역 기독 장병들의 설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군선교를 위한 여성 사역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성 군선교 사역자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도 수요자인 장병들과 공급자의 입장인 군목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성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성직자들이나 이들을 양성하고 관리하고 파송하는 교단이나 군선교연합회 측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여성 사역자를 선발하여 파송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선교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 지원 성직자를 위한 군선교교육원⁴⁶⁾의 커리큘럼에 장병 상담에 관한 과목들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45) 국방부 군종과 총원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

46) '군선교 교육원'은 민간 성직자들이 군선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들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군선교연합회(MEAK)' 산하 교육원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강사가 10년 이상 군선교 현장에서 이를 가르치거나 체계화했던 현역 군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로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군인교회의 찬양 사역자나 주일학교 전도사 등을 민간 교역자들로 청빙하여 동역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육군의 경우 ‘군인 교회 운영규칙’ (2009. 2. 19)이 제정되어 각 군인 교회에서 민간 사역자를 협동 교역자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장병들이 기대하는 상담 등의 자질을 갖춘 여성 사역자의 역할은 군인 교회의 선교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에서 선발하여 야전에 투입한 ‘전문상담관’⁴⁷⁾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상담관으로 채용되어 야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상담인력 양성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1) 목회자로서의 역할

현재 한국 군내에 여성 군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약 51명의 여성 민간 성직자가 지원 사역의 형태로 군 교회를 담임하고 있거나 협력사역에 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군인 교회에서 협동 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민간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성 목회자가 군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혹은 문화적인 제한 사항은 없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 목회자로서 각자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남성(병사의 경우 100% 남자)으로 이루어진 사역 대상을 놓고 볼 때, 그리고 특정 연령과 특정한 문화(병영,

47) 국방부는 현재 약 50명 정도의 전문상담관을 채용하여 야전 부대에 배치시켜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 계약직으로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담관의 상당수는 여성이다.

전투원, 전방지역, 특수임무 지역 등)를 염두에 둔다면 이에 걸맞은 목회적 준비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 숙제가 이들 앞에도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병영이라는 군선교 현장이 여성 사역자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 사역자가 여성이라는 장점이 선교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여성 사역자들이 상담자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장병들이 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 군선교 사역자들에게 상담만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전 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직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2) 상담자로서의 역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역 군목(47%)들과 기독교 장병들(63%)의 대부분이 목회자로서의 여성 사역자보다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군선교 사역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성 성직자들은 상담과 목회 상담(기독교 상담)에 대한 이론과 경험들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에서의 상담은 절대 다수의 사례들을 군종 장교들이 맡고 있다. 군종 장교들은 임관 시에 초등군사반에서(OBC) 전술교육과 기본학과정은 물론 선도업무 I, 청년 심리학, 군종리더십, 집단상담학 등 상담 관련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군사반(대위, OAC) 과정에서는 선도업무II, 의사소통 기법, 이상심리학, 군 상담기법 등을 추가로 학습하게 된다. 소령급 장교가 되면 군종참모반에서 이보다 더 심화된 관련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⁴⁸⁾ 이 외에도 실무위탁교육⁴⁹⁾

48)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학처, ‘군종병과 교육훈련 종합발전방안’, 2008. pp. 30-33.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MBTI성격검사과정⁵⁰⁾, 집단상담사 과정(1-3), 명상상담전문가 과정(불교), 자살예방 전문가 과정, 목회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의 업무를 발전시키고 있다.

육군의 경우 인명사고의 약 70% 정도는 자살로 밝혀지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해마다 68명이 자살하여 당해 년도 전체 사망사고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군중 상담이나 비전 캠프⁵¹⁾ 운용에 있어서 자살사고 예방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육군의 경우 자살자는 10만 명당 8.5명으로서 OECD 평균(11.2명)보다 두배나 높은 한국의 일반 자살율(23.9명)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독일군은 10만 명당 48명으로 한국 육군의 5.6배, 미 육군은 17.6명으로 2.1배, 일본은 41.3명으로 4.9배, 캐나다는 19.3명으로 2.3배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한국군의 자살예방 활동은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군 자살예방을 위해 기울인 군중 장교들의 노력은 이 분야의 이론서를 한국 최초로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매년 집계되는 통계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⁵²⁾ 1981년도에는 군에서 사망한 장병이 806명이었고 이중 자살자는 362명으로 10만 명당 45명의 자살자를 보여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있

49) 군내 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군 예산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현재 육군의 경우 년 약 7개 과정에 200여 명의 군중 장교들을 관련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상담 및 가족 치료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50)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어로서 1960년대 만들어져 80년 초에 개정된 성격검사 프로그램

51) 육군에서 2003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실시되는 군중 장교 주관의 자살 우려자 및 부적응 장병 선도/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연 약 8천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참석자는 자살 및 부적응 장병으로 관리되던 병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여 육군 내 최고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자살예방 관련기관과 일본,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이태리 등 우방국 군중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52) 주연중, '자살에는 길목이 있다', 국방일보, 2009년 1월 18일 자 7면.

다.⁵³⁾ 그러나 구타금지조치와 군중병과에서 자살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1995년 이후로 자살율은 현저히 감소하여 100명 내외로 관리되다가 최근에는 70명 내외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렇듯 자살의 절대 숫자는 줄고 있지만 사망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군내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할 상담 기법과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 사역자들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 영적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상담자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자살심리와 자살위기자 선도에 관한 상담 및 선도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군내에서의 상담은 아직까지는 문제 위주의 상담인 위기상담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생 전체를 상담의 대상으로 삼는 전인상담(whole life counselling)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결혼 상담, 가족 상담, 직업 상담, 건강 상담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성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현장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역 군중 목사들과의 교류와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어머니로서의 여성 사역자

대부분의 병사들이 입대 후 보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면 가족 중에서도 어머니를 많이 꼽는다. 그리고 어머니 상(像)은 병영 내에서 충족되기가 불가능한 어려운 요소이다. 따라서 모성을 가진 여성 성직자의 활동은 병사들에게 목회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남성 성직자가 아버지와

53)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자상규명위원회, 토론 자료집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2006. 11. 28, <국회도서관 강당>, p. 15.

같은 엄격함과 역할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면 여성 성직자는 특유의 모성애로 많은 병사들이 보다 편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털어 놓으며 또한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한 예로 나오미 같은 경우 젊어서 결혼한 엘리멜렉과 이방 땅에서 사별하고도 두 아들과 자부들을 양육하여 따뜻하고도 경건한 어머니로서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⁵⁴⁾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는 누가복음⁵⁵⁾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던 여인으로서 모성과 영적 지혜와 순종을 동시에 보여 준 여인이다.⁵⁶⁾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에게서도 훌륭한 신앙인임과 동시에 자애로운 어머니였던 모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경우도 어머니와 사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의 설교와 고백을 통해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⁵⁷⁾

4) 효과적인 여성 사역을 위한 제언

병영 내에서의 여성의 사역이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는 수준에 있지만 언젠가는 군선교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효과적인 여성 사역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사역은 여성다워야 여성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여성운동, 혹은 여성 사역자들이 간혹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가 남성과의 소모적인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강점은 살리지 못하

고 기계적인 양성평등만을 주장하다 보니 오히려 여성들에게조차도 환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권리 쟁취가 여성운동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을 때 역풍과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조차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성 소방대원, 여성 광부도 남성과 동수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⁵⁸⁾ 그러나 실제로 여성 소방대원의 경우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성 소방대원의 정원은 남성보다 적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차별받지 않았다.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셨고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여 말씀하시지 않았고 여성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⁵⁹⁾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성들을 제자로 삼아 따르도록 하시지는 않았다. 그것은 여성의 당대 사회적 위상과 역할로 보아서 남성 사도들과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신 결과였다고 보인다.⁶⁰⁾ 장병들이 목말라 하는 모성애, 자애롭고 따스한 상담자, 하나님의 품처럼 너그러운 목회자의 모습을 여성 사역자들에게서 보게 되기를 장병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 남성들의 문화, 병영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군대는 엄연히 남성들이 다수인 사회이다. 그리고 전투나 전쟁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 위주로 수행되어 왔다. 여성들이 이해 못하는 남성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군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관련하여 순 기능을 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육군의 경우 5대 가치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이다. 육군 5대 가치는 여성적이기보다는 남성적이고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이다. 미군의 경우도 여군의 경우는 순수 전투원

54) Donald Davidson, *Mothers in the Bible*(Wheaton: Marshall, Morgan & Scott, 1949), p. 57.

55) 눅 4:26; 왕상 17:7에는 사르밧 과부로 등장.

56) Donald Davidson, p. 109.

57)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회 편, 《소양 주기철 목사 기념 논문집》, 2000년 4월, p. 131.

58)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서울: 두란노, 2004), p. 38.

59) James B. Hurley, *Man and Woman in Biblical Perspective*(Leicester: Zondervan, 1981), pp. 82-3.

60) 김세윤, p. 36.

으로는 편성하지 않는다. 무기는 휴대하고 자위적 수단을 가지지만 전투 근무 지원(combat service support)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때 군대가 어느 정도 남성 지배적인 문화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는 여성 사역자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군대는 명령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집단이며 지휘체계가 존중되어야 하고 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이 우선시되는 곳이다. 다분히 통제적이고 폐쇄적이며 오직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단순히 하나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다.⁶¹⁾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적 이해와 접근이다. 선교의 대상인 장병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와 핵심 임무 등을 이해하고 기도와 목회의 대상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성 사역자와 동역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대는 남성들과 남성성으로 넘쳐나는 곳이다. 그 방출해야만 하는 에너지를 신앙생활을 통해 바르게 표현하고 신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여성 사역자에게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주변과 상·하급제대에서 동역하는 현역 군목이나 민간 성직자들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적시에 주고받음으로 사역의 승수 효과(乘數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훈련장을 방문하거나 여성이 상담하기에 곤란한 주제로 상담해야 할 경우에 주변의 남성 사역자들과 공동으로 혹은 인계 과정을 거쳐 함께 돕고 지원하면 남성만의 사역보다, 혹은 여성만의 사역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성과 겨루거나 여성 군사역자 단체 등을 조직하여 세력화한다거나 해서 급기야는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뒤바뀐 사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남성과 여성, 큰 자와 어린 자가 다 복음화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61) 김기태 편, 《군선교 신학》(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0), pp. 313-314.

결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 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심어 주셨다. 성경은 여자가 차별적 존재가 아닌 남자와 동등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기계적으로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대교회로부터 여성 사역은 꾸준히 증가되었고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도 당대의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왔다. 한국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전래와 더불어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교육, 그리고 보육과 건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높아져 갔고 그 중심에는 교회와 기독교 사학들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자유와 인권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운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교회의 인적 구성에서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 사역자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군도 변화하여 여성 인력이 증가되었고 임무수행의 범위도 몰라보게 확대되었다. 군선교 현장에도 여성 사역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간 남성 사역자의 전유 공간이었던 군선교 현장이 어느새 여성과 남성의 공동사역장이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현역 군종 목사들이 여성 사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역의 대상인 기독 장병들도 여성 사역자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종교에서의 여성 사역자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들도 목격되고 있다. 여성 사역자가 가지는 특유의 여성성과 모성애, 그리고 자애로움은 군복음화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의 요구가 목회보다는 상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여성 사역자들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나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사역자

는 그간 기독교가 보여 준 분파주의와 분열의 역사를 교훈 삼아 남성 사역자와 늘 교류하며, 동역함으로 승수 효과를 거둠으로 이 시대에 여성으로 군선교 현장으로 부르심 받은 뜻에 부응한다면 초대교회의 전도 부인들처럼 역사에 남을 사역자들로 기록될 것이다.